

한국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표석

121년 전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 주장 당시 신문에서는 '놀랍고 희한한 일' 반응

'여권통문'을 기념하는 표석이 설치됐다. 여권통문은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권통문은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출신의 이소사와 김소사 이 름으로 발표했다. 당시 '소사'라는 단어는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로 여권통문이 여성에 의해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여성들이 출현했음을 일컫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여권통문은 세상을 향해 여학교를 설립하자고 외치는 내용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통문이 신문에 실린 후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 및 최초의 민간사립여학교 '순성여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장소인 당시 '홍문선교사 학교'(현 서

울 중구 신한은행 백년관 앞)에 표석이 설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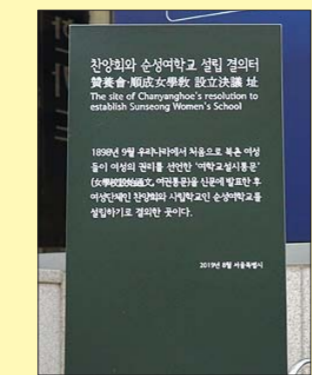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여권통문 기념 표석 제막식을 지난 8월말 개최했다. 또한 여권통문의 존재와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 '북촌에서 온 편지' 특별전, 2018년 '여권통문' 심포지엄,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특별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여권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권). 교육은 남녀 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직업권).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참정



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당시 여권통문 전문이 황성신문(1898년 9월 8일) 및 독립신문(1898년 9월 10일)에 실렸고, 발췌문이 제국신문(1898년 9월 6일) 및 독립신문 영문판(1898년 9월 10일)에 게재됐다.

여권통문을 실으면서 황성신문에서는 "하도 놀랍고 신기하야"라는 반응, 제국신문에서는 "진실로 희한한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독립신문 한글판에서는 아무런 사족 없이 전문을 그대로 실었고, 영문판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실었다.

이진숙 기자 jslee@

성별영향평가 통해 바뀐 정책들 ...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각 기관에서는 법령·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완료했다.

중앙부처는 186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07건(71.3%)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3만 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

고, 2506건(28.9%)을 개선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료 발행 소재 선정 시 남녀 간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인물 관련 유료 발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임신부의 경우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통해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녀 모두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자녀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사회적 파급효과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 등을 포함해 조사·발표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 볼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치매케어로봇 선보여 ... 대화 중심 프로그램

수원과학대 간호학과 오진환 교수팀 개발

수원과학대(총장 박철수) 간호학과 오진환 교수팀이 개발한 치매케어 로봇이 9월 16~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치매극복주간' 행사에서 전시됐다.

이번에 전시된 치매케어 로봇은 치매 예방 및 초기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한 정서적 케어 기능에 중점을 뒀다. 로봇의 이름은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를 부르듯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강아지'라고 지었다.

치매케어로봇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에 있다.

기존에 치매환자들을 위해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동이나 단순 활동이었다면, 이번 로봇 '강아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로봇 상단부에는 센서가 장착돼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대화에 따라 화면에 다양한 표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들이 인지 능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게임, 운동, 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연구책임자인 오진환 교수는 공동연구원 전인희 교수와 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치매케어로봇을 개발해오고 있다. 앞으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오진환 교수는 "치매 관련 로봇 기술 개발에 간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AI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춰 간호의 영역과 신기술을 접목시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순천향-KOICA 캄보디아 앙투앙병원 이비인후과센터

간호사 역량강화 주력 ... 간호부 시스템 구축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앙투앙병원 이비인후과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호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어 주목된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을 잡고 2018년 12월부터 이비인후과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2022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책임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가정의학과 교수이다. 사업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간호부, 병원시설, 행정파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병원 건립부터 의료기기 지원, 운영 컨설팅, 의사 및 간호사 교육까지 지원한다.

간호부문의 경우 올해 2월 간호역량 강화를 목표로 병동과 수술실 실무자가 캄보디아 출장을 다녀왔다. 이어 8월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부천병원 감염관리팀장(간호사) 2명이 현지에서 투입돼 간호사 대상 감염관리 워크숍을 진행했다. '감염관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앙투앙병원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힌 분야다.

또한 간호부 운영 컨설팅을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임정임 간호부장이 직접 출장을 다녀왔다. 간호시스템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간호환경을 점검했다. 내년 1월에는 앙투앙병원 간



호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염관리 및 간호부 운영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정임 간호부장은 "내년 초정 연수를 비롯해 간호부 시스템 구축과 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가 제공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 전담부서인 국제의료기탁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몽골, 불리비아 등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간호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간호부서를 조직하도록 컨설팅하고, 간호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무에타이 국가대표 김효선 간호사

세계무에타이대회에서 은메달 수상

현직 간호사가 무에타이 국가대표로 세계무에타이대회에 출전해 수상했다.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재직 중인 김효선 간호사가 화제의 주인공.

김효선 간호사는 지난 8월말 충주에서 열린 '2019 충주세계무에타이' 무에타이 여자 51kg 부문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대만 선수를 제친 그는 4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 치열한 경기 끝에 값진 은메달을 땀다.

김효선 간호사는 2012년 취미로 무에타이를 시작했다고 하며, 프로를 거쳐 챔피언 자리까지 오른 이색적인 이력을 가졌다.

김효선 간호사는 "중증외상환자를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니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데, 무에타이로 체력과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업무에도 큰 도움



취미로 시작해 국가대표로 우뚝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근무

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로서 한국에서 열린 세계 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가다듬고 정진해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대한남자간호사회 축구대회 ... 우승 세브란스병원

전국의 남자간호사들이 축구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남자간호사회(회장 손인석)는 제6회 축구대회를 9월 2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잔디구장에서 개최했다. 남자간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전국 남간호사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구대회에는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천대 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7개 병원이 출전했다.

우승은 세브란스병원, 준우승은 인하대병원이 차지했다. 동국대 일산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은 하진세 세브란스병원 간호사가 받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31년 전통 명문 학원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기본 이론반 > 심화반 > 단계별 문제풀이반 (기출·단원·실전 모의고사)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김희영 · 오정화 교수의 소문난 명강의!!



김희영 교수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오정화 교수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1~6월
기본이론 + 기술문제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10월
동형모의고사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받은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db 대방열림고시학원

상담문의 02-823-4700